



1,500개 중소기업 구인난, 정부·민간이 함께 푼다

인천북부지청·(주)청라IHP도시첨단산업단지경제인협회·(주)한국상생지원협회,
고용지원 거버넌스 MOU 체결
채용지원·기업컨설팅·일터혁신까지 '원스톱 종합지원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사)청라IHP도시첨단산업단지경제인협회, (사)한국상생지원협회와 함께 4월 23일(목) 청라IHP도시첨단산업단지 고용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약 1,500여개 중소기업이 밀집한 청라 산단의 만성적 구인난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기 위한 '기업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남측에 조성된 청라IHP도시첨단산업단지는 자동차 첨단 부품, 신소재, IT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R&D 클러스터로 현재 약 1,500여 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다. 우수한 입지 규모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접근성 저하와 주차 공간 부족 등 고질적인 인프라 결핍을 겪어왔다. 여기에 생산·기술직 인력의 수급 불균형까지 더해지면서, 입주 기업들의 구인난이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난제로 고착화되고 있다.

그간 산단 내 기업들은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의 직무 역량이 기업 수요와 맞지 않는 미스매칭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천북부지청은 이를 단일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청라IHP산단경제인협회·민간지원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현장 밀착형 '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기업 맞춤 채용지원 ▲기업종합지원서비스 제공 ▲고용노동·일터혁신 컨설팅 및 교육 ▲일자리 창출 공동사업 추진 등 전방위 협력에 나선다.

특히 인천북부지청은 구인 애로 기업을 적극 발굴해 채용·훈련·고용환경 개선을 한 번에 연계 지원하는 '원스톱 기업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북부지청은 산단 내 구인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채용행사 개최 및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후속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협약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실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북부지청 이상목 지청장은 "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것이 곧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협약체결 사진

담당 부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책임자	소 장	박해정 (032-540-5601)
		담당자	팀 장	이장근 (032-540-5823)

<붙임>

